

새로운 출발...힘든 만큼 즐겁다

중앙승가대 입학식 현장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화 한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 한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화 한다.”

‘승가실천강령’을 외치는 스님들의 소리가 무명의 정막을 찢는 사자후처럼 울린다. 3월 3일 중앙승가대 대강당. 2008학년도 입학식 현장이다.

스님들만 다니는 대학의 입학식은 어떤 분위기일까? 일반 대학의 입학식과 가장 다른 점은 부모나 친지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입생 학인들과 선배스님들 그리고 단상의 어른스님들과 귀빈들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축하를 위해 동참한 선배스님들은 매우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신입생 학인들에게서는 긴장감이 역력하게 느껴진다. 입학식장의 주인공, 08학번 스님들은 모두 112명으로 대학원 22명(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17명)과 학부 90명(불교학과 25명, 역경학과 7명, 포교사회학과 20명, 사회복지학과 30명)이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오늘의 입학식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는 총장 종범 스님의 환영사가 시작됐다. 의상대사의 ‘이르는 곳마다 출발하는 곳(止發處)’이라는 말로 매사에 시작이 중요함을 강조한 종범 스님은 “오늘의 입학식이 학문의 시작이고, 수도의 출발이며, 중생교화의 시발점이다. 성실하고 향학열에 불타는 학교생활을 통해 큰 빛을 받게 되리라”고 당부했다.

중앙승가대 2008학년도 입학식은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승가실천강령 낭독, 학사보고, 입학식 선서, 입학허가 선언, 입학성적 우수자 장학증서 수여, 총장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입학식이 끝나자 1층에서 기념촬영이 있겠다는 사회자 천산 스님(총무국장)의 안내에 고학년 스님들이 자리를 나선다. 선배스님들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안행하며 지난 공간을 길이 됐고, 그 빈자리를 새내기 스님들이 메우며 뒤따른다.

선배스님들은 도서관, 기숙사로 저마다 할 일을 찾아 사라졌다. 자비관(대학본부) 현관에서 있는 사진촬영도 끝났다. 새내기 스님들은 비구·사미, 비구니·사미니로 나뉘어 각각 육화당(비구 기숙사)과 화경당(비구니 기숙사)으로 들어갔다.

딱 한번, “차수하고 시선 고정하세요.” 습의사 범초 스님(2학년) 목소리가 들렸을 뿐 육화당에 이를 때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육화당에 이르는 동안 스님들의 안행은 소리 아닌 소리로 저마다의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경책이 됐다. 안행은 스님들이 차수하고 즐밧밧 소리 없이 도량을 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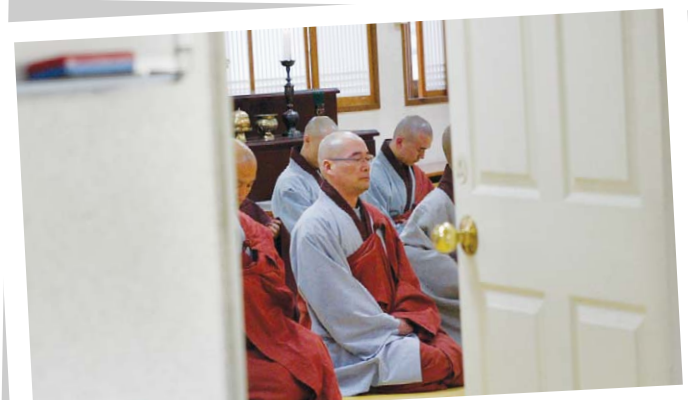
는 것이 쉽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자유인이 되겠다고 출가했을 터, 어찌 이런 속박을 자청한 것일까? 동국대·강원·승가대등 기본교육기관을 마쳐야 비

가해서 지내보니 모자란 부분이 많았다”는 스님은 “현대교육과 전통교육을 함께 받고 싶어 찾았다”며 입학동기를 말했다. 조주 스님의 경우도 특이하다. “출가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대중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다. 새로 태어나 시작하는 각오로 입학하게 됐다”는 스님은 모스크바 달마사, 우즈베키스탄 자운사 등에서 해외포교를 위해 힘써왔다. 조주 스님은 “승가대 교육을 마치면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 현지포교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각오와 계획은 서운 스님과 무경 스님 등 2007년 9월, 제33기 행사교육을 거마친 스님들도 같았다. “승가 경력이 일천해 습의할 것이 많다”는 서운 스님의 입학동기는 은사 도신 스님(서산 석왕사 주지)이 “출가한지 얼마 안 된 사미는 중물이 제대로 들어야 한다”며 입학권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신입생 중 좌차없는 순세가 가장 낮은 무경 스님도 은사 운성 스님(진해 대광사 주지)이 “내전과 외전 체계가 잘 갖춰진 곳”이라 추천해서 입학했다. 무경 스님은 “좌차없는 순세가 낮은 만큼 더 많이 노력해 대중화함에 힘쓰겠다. 승가대에서 내전과 외전을 두루 배워 선사의 길을 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을 향해 새내기 스님들은 큰방에서 하심과 평등, 상생을 화두로 대중생활을 한다. 학사로 세속의 강산은 뿌연 요즘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화·생활화·대중화 하겠다”는 스님들의 열망이 가득한 한국불교의 미래는 쾌청하다.

글=조동섭 기자 ces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jwark@buddhapia.com



입학식 후 큰방에서 습의사 스님의 생활지침을 경청중인 신입생 스님들.

보고 입은 굳게 다문 채, 두 손은 포개 단전에 놓고 가을밤 하늘을 나는 기러기처럼 차수와 안행은 기본이다. 처소도 선배스님들은 2인 1실을 사용하지만 1학년 스님들은 200여명 남짓한 큰방에서 함께 생활한다.

“대중생활이 어렵겠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의 과정인 만큼 슬기롭게 견뎌내기 바랍니다.” 습의사 승묵 스님(3학년)의 말을 큰방에 앉아 경청하는 새내기 스님들의 모습은 경직돼 있었지만 눈만은 새벽별 같았다.

큰방에서의 대중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스님은 없을까? 해웅 스님(입승)은 “비구와 사미가 함께 대중생활을 한다

계 수지가 가능한 승가교육체계의 이유도 있지만 정작 중앙승가대를 찾은 출가자들에게 그것은 단지 제도일 뿐 이유는 달랐다.

이번에 입학한 정현 스님과 지묵 스님도 그랬다. 두 스님은 이미 강원도 마쳤고 비구계도 수지했다. 출가한지 올해로 11년 됐다는 정현 스님은 백양사 강원을 나오고 중강소임도 3년 살았다. 그런 스님이 다시 중앙승가대를 찾은 것은 폭넓은 교리와 역사를 습득해 정견을 세우겠다는 진리에의 열망 때문이었다. 정현 스님은 승가대에서 바른 정견을 세워 졸업 후 “선방을 찾아 정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묵 스님도 같았다. “출



백화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지는 좀 좋은 지장도량을 세웁니다.

山門 여는 날 2009년 10월
 불사 동참 (국번없이) 1588-1936